

사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시민의견 겸허히 들어야

전주종합경기장 더 개발 기본 구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체 땅

3분의 2가량을 숲으로 만들고, 백화점과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나머지 터에 짓는 게 빠대다.

백화점은 2019년 발표 때와 달리 층수를 상향 조정, 면적이 두 배로 늘었고 컨벤션센터 지하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새전북신문이 단독 입수해 분석한 자료인데 전주시는 이를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는 이유인데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비록 구상안이라 할지라도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순리다.

사유지인 대한방직터는 시민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공문화위원회까지 만들어 운영하면서 정작 시민재산을 개발하는 일에 구상안조차 밝힐 수 없다니 의아할 뿐이다.

물론 경기장 더 개발을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당장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타당성조사 의뢰는 이날 말 도

시민단체 “시민의 숲 아닌 롯데의 숲 될것” 지적 ‘99년 임대’ 외국인투자유치법도 따져봐야

자사업관리센터가 조사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조사 결과는 연말은 돼야 나온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신청해야 되고 컨벤션과 호텔의 규모, 건립 시기, 운영 방식 등을 최종 확인해 롯데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이유로 기본구상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다. 하지만 기본구상을 보면 당초 발표보다 백화점 규모가 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도 구상중이다. 호텔과 백화점, 컨벤션을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도 있다.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지하통로까지 연결되면 백화점과 호텔 집객효과는 물론 편리함이 극대화된다. 호텔과 백화점 주변에 대규모 숲까지 조성된다. 롯데 측에 터를 최장 99년까지 임대하는 조건인 외국인투자유치법도 따져볼 게 많다.

시민단체가 경기장 개발을 두고 “시민의 숲이 아닌 롯데의 숲이 될것”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들어야 하는 이유다.

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넘어간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

초등학교 신입생 아동 소재 빨리 확인해야

전북 도내 지역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가운데 학교와 주민센터를 통해 소재

지가 파악되지 않는 9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수사의뢰 아동 중 안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전국에서 초등학교생 266명이 예비소집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75명은 소재를 확인했고 58명은 소재를 확인중에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해외에 있어 예비소집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동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교육청이 관련해 수사의뢰한 경우는 133명이다. 수사의뢰 건수는 경기남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19건, 충남 16건, 전북 12건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유는 가정 사정으로 취학을 연기하거나 해외 출국 및 미인가 대안학교 진학, 흡스쿨링 등을 선택한 것으로 다양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1차 집계기준 올

“도내 15명 소재 불분명 수사 의뢰 교육청 예비 초등생 9명 수소문”

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1만4,564명으로 전년도 1만 4,977명 대비 413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1만3,861명(95.2%)이 예비소집에 참여했고, 불참아동은 703명(4.8%)으로 집계됐다. 불참아동 중 32명은 예비소집일 이후 입학의사를 밝혔으며 취학유예·면제 등 해외거주자와 다른 학교 전학예정자는 656명이고, 소재 확인이 안된 아동은 현재 9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주민센터와 협조, 보호자의 연락처와 실제 거주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타시도 전출 및 해외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연락두절 등 소재 및 안전 확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출입국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동의 신변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일에 경찰과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예비 소집과 입학식 등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한다.

아동의 소재뿐 아니라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미취학 아동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해야 한다.

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1만4,564명으로 전년도 1만 4,977명 대비 413명이

오늘의 각목

내 친구 유기전 ‘딸기’를 사랑하기까지



안 승 현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며칠 전 하얀 눈이 펄펄 내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 남편과 함께 텃밭지와 장갑, 목도리로 무장한 채 딸기의 집으로 향했다. 딸기가 먹을 새 밥과 물을 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하얀 눈길을 걷기 시작했다. 딸기의 파란 집에는 따뜻한 전기방석과 담요로 감싸주는 포근함과 겨울철에도 푸르른 소나무, 호랑가시나무, 향긋한 로즈마리, 감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등의 각종 나무와 약초 위에 날아드는 새들의 지저귀이 벗을 대신해주는 텃밭과 야자 매트, 분홍색 미니주책과 마주할 수 있는 평온함과 자유로움.

그 속에 친정어머니가 그렇게나 애지중지 사랑했던, 딸기와 추억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에 갈 때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감동과 치유라는 선물을 가득 담아온다. 생전에 어머니가 그렇게나 꿈꾸어 오셨던 텃밭과 사색,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새들의 향연, 파란 로즈마리 잎새와 나무들 틈새에 수줍게 피어나는 진분홍 송엽국이 손짓하는 정원의 한 가운데 딸기가 동지를 갖고 자연과 더불어 멋진 삶을 누리고 있다. 딸기는 어느 봄날, 한 동물보호소에 자원 봉사하러 갔다가 우연히 인연이 되어 평소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친정 어머니의 말씀에 안락사 직전 입양된 유기견이다.

유난히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딸기는 첫눈에 반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행운을 가져왔고 가끔 친정집에 가게 되면 딸기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오늘은 소고

깃국을 끓여 보았단다’ 하시며 숯불구이 소시지, 소고기와 사료를 섞어 먹이시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딸기에게 사랑을 뱉긴 서운함이 많았고, 심지어 교회에 가실 때에도 어머니와 함께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딸기를 시샘하는 일들이 자주 있곤 했다.

어떤 때는 어머니 친구분과 말씀하시는 착각을 할 정도로 겹겹 웃으시면서 ‘딸기가 내 바지를 물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생적으로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오신 존경스러운 어머니 생각에 우리 가족은 불면증에 시달리다 못해 새 주인을 찾아 입양하게 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피양하게 되어 딸기를 온전히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부부는 서먹서먹한 친구로 맞이하는 불편한 한 가족이 되었다. 동물보호소에 다시 보내라는 주위의 충고와 친척들의 간절한 요청도 많았지만 딸기를 돌볼 던지기보다는 그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겨우나 주기로 다시 한번 더 다짐해본다. 딸기와 산책을 하고 예방접종을 시기에 맞추어 신경 쓰고 맛있는 사료와

오늘 시장을 못 갔어.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창문 앞에서 딸기가 기다리다 지쳐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나를 어찌나 반갑게 맞이해 주던지 서로 껴안고 울었단다’ 하시던 모습들로 가끔 우리 자식들을 당황스럽게도 하셨다. 외롭고 쓸쓸한 어머니의고독한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 고마운 딸기이었음을 고백한다. 이런 행복한 나날 속에서 잠깐 바람 쐬러 마실 나간 딸기를 찾아 나서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는 슬픔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웃분들의 딸기에 대한 증오와 비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딸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좋은 분 돌아가셨어’ 하는 빗발치는 폭언들 속에서 겁에 질린 딸기는 물론, 입양을 해 준 우리 부부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딸기만 보면 현신적이고 희

간식을 고르는 남편의 배려와 아빠가 딸기를 소중히 가족으로 보듬어 주기까지 따뜻한 위로와 인내로 응원해준 아들과 딸, 갑작스러운 어머니와의 이별과 충격 속에서도 변함없이 딸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준 동생들의 천사같은 마음 덕분에 고통스럽고 힘든 터널을 지나 딸기는 이제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우리는 많은 상처와 좌절을 경험했던 딸기처럼 코로나19라는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고 다독여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작고 소소한 사랑을 담아서 선물하면 더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미소를 지어본다. 오늘따라 딸기와 나산 산책길 위에 함박눈이 큰소리로 대답을 한다. “맞아요. 응원해요” 희망의 메아리가 넓게 퍼져 나간다.

스트레스 다스리기



사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갑자기 욕이 튀어나온다면 심각한 정도이다. 그렇지 않고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감사한 상태다.

다음, 하루에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입으로 내뱉거나 속마음을 하거나 간에 주로 하는 말을 알아보자. 그런 다음 들으면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비물질’이어야 할 것. 에너지가 되는 말을 평소애 자주 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듬뿍 칭찬을 해주시길 바라는 에너지는 채워지는 셈이다. 이제 에너지가 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자. 아주 많이, 자주, 솔하게! 특히 아침에 눈을 뜰 때, 자기 전에 에너지가 되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해주자. 몸도 마음도 환하고 싱그러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 더, ‘마음의 빛’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새를 상상해보자. 크기, 모습, 빛깔을 자세히 상상해보자. 이 새는 내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새다. 변함없이 늘 포근하고 다정한 새다. 비난과 비판 따위는 하지 못하고 오로지 위로와 격려만 하는 새다. 모습을 그대로 떠올려서 이름을 지어주자. 열린 마음으로 새 이름을 세 번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지지해줄 것이다.

스트레스는 치유가 일상화될 때 다스릴 수 있다. 더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77가지 비결을 제시한 책이 있다. 궁극해하실 분을 위해 책 이름을 남긴다. ‘당신의 마음을 글로 쓰면 좋겠습니다’ /박정혜(심상치의료센터장, 전주대 겸임교수)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주목상생 063) 230-5712

<국제 PEN 한국본부 전북위원회 회장> 지은이 이정숙

계단에서 만난 시간

- 지금은 노랑신호등
- 내 안의 어처구니
- 꽃잎에 데다

이후 4번째 몽골여행 에세이

‘계단에서 만난 시간’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여행에서 만나는 대상과의 미러링을 통해 숨춘 사유를 건어올린 에세이다. 순우리말을 가미한 철학적, 문학적 깊이는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끌어낸다. 울컥려 울려진 몽골 사진들은 현지를 다녀온 사람은 다시 추억을 소환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몽골 여행을 꿈꾸게 만든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여행의 진정한 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길을 떠날 것이다.

인간과 문학사